

## 나실인의 삶 II.

### 세상이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거룩함의 능력

#### 1. 나실인의 언약

[사사기 13:5, 7]

5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오므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됴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7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됴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 \* 나실인과 삼손

지난주 이 시대 나실인의 언약이 왜 중요한지를 말했다. 세상과의 구별이 거룩이다. 나실인의 존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삼손이다. 삼손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블레셋의 지배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함이다(5절). 나실인은 세상에 대한 분명한 데스티니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 시대 나실인의 부르심이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나실인 삼손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이해하라.

ㄱ)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나타나기 위함이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ㄴ) 파멸의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2. 세상이 두려워 할 하나님의 능력 - 거룩

나실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이다. 거룩함을 성전만이 아닌 '삶'에서 지켜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지키므로 거룩함을 삶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룩함의 삶은 도를 알고 깨닫는 '종교적 자아성찰의 삶'이 아니다. 나실인의 거룩함에는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임했다는 사실이다. 거룩이 모양이 아니라 능력의 실재로 임하는 삶을 말한다.

[사사기 13:25]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사사기 14:6, 19]

6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19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 곳 사람 삼십 명을 쳐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사사기 15: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명심하라. 거룩함은 단순히 순결하고 깨끗한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분명하다. 세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거룩은 '종교적 거룩'이 아니다. 능력의 삶을 말한다. 이 능력은 세상이 두려워 할 만한 진짜 능력이다. 진짜 능력이 있는가? 오늘 그 능력은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나온다.

### 3. 세상은 삼손에게 부여된 능력의 근원을 진짜 알고 싶어한다.

[사사기 16:5]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피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천백 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사사기 16:15]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든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블레셋은 기생 들릴라를 통해 그들을 두렵게 했던 삼손의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기를 원했다. 블레셋에게 있어서 삼손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 두려움의 근거는 '진짜'를 보았기 때문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은 '진짜'를 보기 원한다. 조작하거나 만들어지지 않은 진짜 하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손처럼 자신의 통제권 바깥에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를 가장 두려워 한다. 예수님의 존재도 그와 같다. 바리새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이다. 예수님을 통한 진짜 '하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정말 승리하고 싶은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힘은 결국 더 큰 힘에 의해 통제받게 되어있다. 세상에 없는 힘이 있어야 한다. 세상의 힘이 '속물'처럼 보이게 하는 진짜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다. 진짜 능력은 '세상'이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이다. 땅이 주지 못하는 능력이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세상은 진짜를 보면 정말 궁금해 한다. 그리고 알기를 원한다. 권위 아래로 들어온다.

### 4. 정의를 다시 하라.

세상이 정한 모든 아름다움과 능력의 정의를 다시 하라. 성경적으로 다시 정의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그 정의대로 살아야 능력이 된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마라. 세상풍조 따라가지 마라. 쫓아가면 이미 지나가있다. 무엇이 진짜 아름다움인지, 능력인지, 부유함과 풍요함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 진짜를 통해 세상은 솔로몬에게 찾아온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질문한다. 세상의 질문을 받아야 한다. 그 능력의 삶이 실재가 되게 해야한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삶은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임을 명심하라.

### 5. 들릴라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 **들릴라의 목적** : 나실인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갈 때 임했던 삼손의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들릴라의 존재 이유이다. 세상은 '들릴라'를 만들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거룩함을 부셔버리려고 한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다. 나실인의 언약인 머리카락을 자르는 일이다. 머리카락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언약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약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이 사라지고 '육'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다.

그 때부터 삼손처럼 능력이 없어지고, 세상의 지배 아래에 있게되며, 눈이 빠지는 실재적인 묵임과 고통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순히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처럼 고통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1)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심을 하게 한다.**

선악과의 사탄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의심하게 한다. 거룩한 삶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질문한다. 교묘한 질문이다. 마치 내 삶을 묶는 일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렇게 될 때 거룩의 기준이 흔들린다. 분명히 하라. 거룩이 무엇인지, 순결이 무엇인지, 성결이 무엇인지, 진짜를 진짜 되게해야 한다.

**(2) 내가 언약이 되게 한다. 내가 기준이 되게 한다.**

‘언약’의 삶이란? 진짜가 진짜되게 하는 삶이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울 수 있는가? 교회이다. 교회는 언약의 몸이다. 가장 강력한 가치 공동체 이다. 세상은 내 자유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진짜 가치를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 내가 죽고, 남이 사는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이 공동체이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진짜를 진짜되게 하는 언약의 세대가 일어나야 한다.

**(3)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되게 하는 사람들로 일어나자.**

무너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다시 세우라. 이제 지식, 머리의 신앙이 아니다!! 언약이 무엇인지 드러내라! 언약을 지킴으로 인해 부여지는 ‘거룩함’, ‘정결함’의 능력을 이제 삼손처럼 드러내라! 경험하라!

**6. 실천’방법’ - 말씀과 기도 그리고 행함**

[디모데전서 4: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 ㄱ) 말씀(진리)과 기도(영)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실체이다.
- ㄴ) 하나님을 본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표현했다. 하나님의 실체이다.
- ㄷ) 거룩함이 일어날 때 하늘이 임한다.
- ㄹ) 거룩은 구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이 임하는 장소이다.